

동시대 시각예술 작가들에게, 그중에서도 사진매체를 다루는 이들에게 ‘도시’의 존재와 상징은 그저 하나의 소재에 머물지 않는다. 작가들이 도시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작가 자신의 성장 경험, 사진을 바라보는 태도, 관심사에 따라 매우 촘촘하게 나뉜다. 가령 임응식의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 속 서울의 모습과 동시대를 살았던 성두경이 찍은 서울의 풍경이 무척이나 다른 것처럼,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 사이에서도 각자가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몇 단어와 문장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시’를 다룬 작업들은 2차원의 선으로 그려진 ‘계보’의 영역이 아니라 3차원 공간좌표로 구현되는 하나의 우주처럼 작동한다.

1984년생인 양승원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래 작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1970-80년대생 중 도시를 작업의 소재로 다뤄온 작가(금혜원, 정지현, 박찬민 등)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아파트 키드’이고 이들보다 이후에 출생한 작가들에게 ‘아파트 키드’는 특별한 경험이 아닌 성장과정의 기본값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승원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특별한 지점이 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경기도 이천은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가까운 편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더욱 도시화가 되지 못한 ‘끼인 공간’이었다. 특히 집에 TV나 신문이 없었던 다소 독특한 가정환경 덕분에 그는 스무 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의 풍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그가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어 온 50~60년대생 작가들과는 또 다른 경험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전 세대 작가들에게 도시는 그들이 자라온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진 ‘현대사회의 산물’로서 마을과 골목에 대한 대립항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양승원에게 도시는 이미 완성된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막연한 호기심 그 자체이자 대립항으로도 연결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환경으로 다가왔다. 물론 그도 도시의 존재를 목격한 이후로 도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그 도시에 몸담게 되고 그 시간이 도시 밖에서 살아온 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 거부감은 고민과 궁금증으로 전환된다.

양승원은 처음 카메라를 잡았던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와 도시 건축물들을 기록해 왔다. 처음에는 무작정 숲을 이룬 아파트의 모습을 좇았지만 이후 도시의 빈 광고판에 주목하거나(Sign, 2007), 도시의 같은 좌표에 놓인 지상과 지하의 풍경(The Address Space, 2006)을 찍고, 이제 막 도시가 생겨나려는 곳을 적외선 사진을 이용해 낮설게 포착(Real and Figure, 2010)하기도 했다. 각각의 작업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이지만 이를 좀 더 넓게 바라보면 그가 집착에 가깝게 고민하는 도시나 집에 대한 관점 역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영국 유학 시절에 시작한 사진 및 설치 작업 시리즈 ‘Act3 Scene2(3막 2장)’(2015-)에서 작가는 아파트와 같은 도시 건축물이 마치 그래프처럼 놓여있는 풍경을 하나의 그래픽으로 치환하여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사진에서 추출한 색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ct3 Scene2 Nest’ 시리즈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시의 이미지는 쉽게 찾아낼 수 없지만, 설치 작품을 다시 촬영한 사진 시리즈에서 우리는 이른바 ‘빌딩숲’이라 불리는 도시의

단면을 포착할 수 있다. 양승원의 지난 작업에서 늘상 흑백이나 무채색으로 표현됐던 도시 건축물들은 이제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츰 변화하고 있음을 은유한다.

‘Act3 Scene2’ 시리즈와 별개로 5년 넘게 진행 중인 ‘Homage to Becher(가제)’(2011-) 시리즈는 한강 다리 주변에 만들어진 전망대 겸 카페와 한반도 곳곳에 만들어진 전망대들을 유형학적 방식으로 기록한 작업이다. 9개의 사진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이 작업은 현대사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베허 부부의 급수탑 시리즈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Homage to Becher’는 다소 철 지난 유형학 계보를 답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작업을 유형학적 사진으로만 바라보기에는 꼭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는 분명 유형학적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것의 말하기 방식은 그동안의 유형학 사진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유형학 사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나열하면서 특정 분야 또는 소재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기능해 왔다면, 양승원의 작업 속 전망대는 시각적인 유사성만 있을 뿐,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사용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인다. 다시말해 이들 건축물은 사실상 모두 다른 역할로 기능하기에 ‘전망대’라는 분류 자체도 완전히 타당하지 않다. 양승원의 눈에 들어온 길쭉한 건축물들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보다는 누군가의 명확한 의도 또는 어떤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점에서 그의 작업을 과거의 유형학처럼 사진의 표면만으로 해석하기엔 이에 가려진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는 ‘Homage to Becher’ 시리즈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형학 이후의 유형학’을 탐구하는 작가의 고민 그 자체이기도 하다.

‘Homage to Becher’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은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망대’의 모습에서 각기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띠고 있다. 한강의 다리마다 만들어진 전망카페를 비롯하여 쉽게 위치를 추측할 수 없는 지방의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꾸준히 이러한 건축물들을 찾고 조사한다. 특히 재개발 지역이나 간척지와 같은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위치한 몇몇 전망대의 경우 관광 목적에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설명이나 분양을 위한 철저히 일시적인 용도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워진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의 전망카페 역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승원이 주목한 전망대들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만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특히 모델하우스처럼 분양 또는 사업 유치를 위한 한순간의 ‘조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망대들은 그 쓰임이 끝나고 나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폐기물과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과정과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한다.

도시를 소재로 다뤄온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 생 작가들(금혜원, 김승구, 김태동, 안종현, 정지현 등)은 윗 세대의 유형학에 비해 덜 포토제닉 하지만, 개인적 관점과 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아주 느슨하게 ‘밋밋한 풍경’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데, 양승원의 ‘Homage to Becher’ 시리즈는 단순히 현대사회의 어떤 단면을 모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상황과 현실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윗 세대의 유형학 작업과 80년대생 작가들의 다소 밋밋한 풍경을 보여주는 작업의 중간지대에 놓인다. 이런 지점에서 이는 다른 유형학 작업처럼 특정 시점의 역사적 기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좀 더 작업량이 쌓인 이후에는) 양승원이라는 한 개인이 바라본 도시에 대한 개념과 고민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작가가 여러 작업을 통해 다뤄온 주제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되며, 사람들과 자신에게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은 사실 한 두 개의 작업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양승원의 작업들은 그저 ‘도시’를 소재로 한 파편처럼 산재해 있지만, 앞으로 작업이 쌓여가면서 더 다양한 레이어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분명 그가 처음 도시를 목격하며 가졌던 의문이자 경이로움인 ‘이 도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주제를 건드리는 작업의 과정은 너무나 고단하고 험난하기에 누구도 이를 작가에게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이 무모한 시도를 이어갈 것 같다. 그가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정리해온 두꺼운 스크랩북은 한결같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고민들로 가득했고, 그는 여전히 그 스크랩북을 꾸준히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 뜯어말리더라도 이 지루하고 고단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몇 권의 스크랩이 더 만들어지고 또 몇 번의 실패와 마주하면서 점처럼 흩어진 각각의 작업들이 어떤 궤적을 그릴 때쯤이면, 그제서야 우리는 양승원이 보았던 도시의 경이로움과 그 이면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